

5월 국세 수입, 4월에 이어 계속 저조 5월 말 기준 지자체 보통교부세 3조 원(5.0%) 감소 추정

국세 실적 전달보다 감소 폭 완화됐으나 추세는 여전히 낙관 어려워

작성 : 손종필 수석연구위원

나라살림연구소 소장: 정창수 |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1 | <http://www.firiall.net/> | 02-336-0619

‘24년 5월 국세 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

- 요약 -

- 정부는 6월 30일 2024년 총국세 367.3조 원에 대한 ‘24년 5월 국세 수입 현황’을 공개 하였음.
- 5월 말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월 160.2조 원보다 9.1조 원 적게 걸렸음.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또한 8.9조 원이 적게 걸힘.
 - 5월까지의 국세 수입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9.1조 원이 감소했지만, 4월까지의 누적 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일부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인 작년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음.
 - 전년 대비 월별 감소액은 3월 말 기준 $\Delta 2.2$ 조 원, 4월 말 기준 $\Delta 8.4$ 조 원, 5월 말 기준 $\Delta 9.1$ 조 원임.
-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직접 연관이 있는 내국세의 경우 4월 누계에서는 8.3조 원이 감소 했지만, 4월 기준으로는 $\Delta 8.9$ 조 원으로 감소 폭이 0.6조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보통교부세의 감소를 대비한 재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
- 작년 국세 결산 진도율을 기준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2.99조원 (5%)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.
- 기획재정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진도율이 5월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$\pm 5\%P$ 를 넘게 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조기경보를 내리고 세수재추계를 한다고 밝혔으나, 세수재추계 결과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입장. 하지만 국민의 알권

리 차원이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.

1. 분석 이유

- 정부는 5월 31일 ‘24년 4월 국세 수입 현황’을 공개하였고,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수재 추계를 한다고 밝힘.
-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경우 징수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요한 자원인 정률 교부세(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)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음. 국세 수입이 예산액보다 적게 징수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내주는 정률 교부세액이 자동으로 축소됨.
-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액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-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국세의 경우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8.9조 원 감소하면서 3달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. 추세상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, 일정한 수준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 - 지방자치단체들은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와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교부세 감액 내시에 따라 자체 예산 조정 등과 함께 지방채 발행, 통합재정안 정확기금을 활용해 사업예산을 확보했음.
 -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고 재정압박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.

2. ‘24년 5월 국세 수입 현황 분석

□ 국세 9.1조 원 감소, 진도율 5.5% 하락

- 2024년 5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도 실적치인 160.2조 원보다 9.1조 원이 감소한 151조 원임.
 - 지방교부세의 자원인 내국세는 136.9조 원으로 전년 5월 145.9조 원보다 8.9조 원이 감소함.
- <표 1> 참조. 감소액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로 전달 12.8조 원에 이어 2.5조 원이 추가 감소해 15.3조 원이 누적 감소함. 증감률로는 무려 35.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

세 실적 악화를 주도하고 있음. 법인세 감소의 원인은 감세 정책과 기업들의 실적 저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- 소득세는 4월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5월에 0.3조 원 증가세로 전환되었음. 부가가치세의 경우 5.4조 원이 증가해 국세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임.
- 부가가치세의 실적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유리한 부분으로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는 영향을 끼침.
- ※ 「부가가치세법」 제72조(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) …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 세액 및 공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,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.
- 특이사항은 과년도 수입 징수 실적이 매우 높다는 점임. 2024년 예산은 5.7조 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데 징수율이 86.9%로 전년 동월보다 15.7%p 높아 체납세액 징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.

〈표 1〉 5월 기준 국세 징수 현황

(단위: 조 원)

세목	구분	'23년 실적	'24년 예산	5월까지 누계				5월 진도율		
				'23년	'24년	증감	(증감율)	'23년	'24년	증감
■ 총 국 세		344.1	367.3	160.2	151.0	△9.1	△5.7	46.6	41.1	△5.5
○ 내 국 세		306.1	321.6	145.9	136.9	△8.9	△6.1	47.7	42.6	△5.1
- 소득세		115.8	125.8	51.2	51.5	0.3	0.7	44.2	40.9	△3.3
- 법인세		80.4	77.7	43.6	28.3	△15.3	△35.1	54.3	36.5	△17.8
- 상속증여세		14.6	14.7	6.9	6.9	0.0	0.3	46.9	46.9	-
- 부가가치세		73.8	81.4	33.5	38.8	5.4	16.1	45.3	47.7	2.4
- 개별소비세		8.8	10.2	3.8	3.8	△0.1	△2.2	43.5	36.8	△6.7
- 증권거래세		6.1	5.4	2.6	2.3	△0.2	△9.0	42.0	43.1	1.1
- 인지세		0.8	0.9	0.3	0.4	0.0	13.4	39.1	41.5	2.4
- 과년도수입		5.7	5.7	4.1	5.0	0.9	21.9	71.2	86.9	15.7

자료: 기획재정부. '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

□ 3개월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

- 1월과 2월 국세를 비롯해 내국세의 징수 실적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음.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으나, 3월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됨
- 2월 3.8조 원 증가에서 3월 2.2조 원 감소세 전환의 규모는 6조 원가량으로 큰 변화폭

이 발생함. 4월의 감소 폭 또한 6.2조 원에 달해 3월과 4월 두 달 연속 6조 원 이상이 감소하였으나, 5월에는 7천억 원 감소에 그친 점은 긍정적임.

〈표 2〉 2023·2024년 국세 수입 징수 현황 비교

(단위: 조 원)

구분	예산액	국세 수입액(누적)				
		1월	2월	3월	4월	5월
2023년	306.1	42.9	54.2	87.1	134.0	160.2
2024년	321.6	45.9	58.0	84.9	125.6	151.0
증감	15.5	3.0	3.8	△2.2	△8.4	△9.1

주1) 2023년은 실적치

주2) 월별 수입액의 사사오입에 따라 전년도와의 증감액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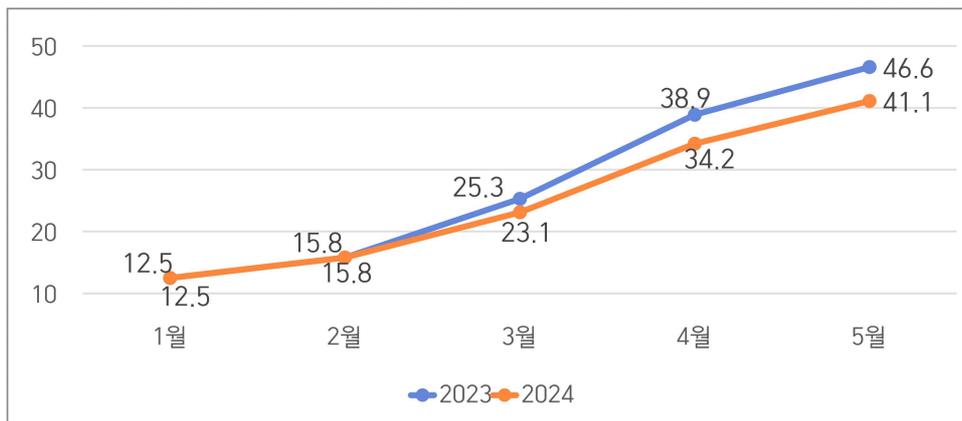
자료: 기획재정부. '24년 1~5월 국세수입 현황 재구성

□ 최악이었던 2023년보다 더 떨어지는 진도율

- <그림 1>을 보면 2024년 5월까지의 국세 수입 진도율은 41.1%로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3년의 실적치 기준 진도율인 46.6%보다 5.5%p 더 낮아 세수 결손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.
- 5월 말 기준 진도율이 41.1%는 작년 예산 기준 진도율인 40.0%보다 1.1%p 높으나, 최근 5년간의 진도율인 47.0%보다는 무려 5.9%p 차이가 나고 있음.

〈그림 1〉 국세 진도율 추이

(단위: %)



- 감소세로 전환된 3월부터 전년과 비교할 때 진도율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커지는 상

황을 볼 수 있음.

- 3월 진도율 격차는 $\Delta 2.2\%$ 였으나 4월에는 $\Delta 4.5\%$, 5월에는 $\Delta 5.5\%$ 로 격차가 작다고 할 수 없음.

□ 5월 말 기준 내국세 8.9조 원 감소

-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액과 직결되는 내국세의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8.9조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1월과 2월에는 3조 원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, 국세와 마찬가지로 내국세도 3월에 2.2조 원 감소세로 전환한 후 4월에는 8.3조 원, 5월에는 8.9조 원이 감소

<표 3> 2023·2024년 내국세 수입 징수 현황

(단위: 조 원)

구분	내국세	내국세 수입액				
		1월	2월	3월	4월	5월
2023년	306.1	39.9	49.1	79.3	122.6	145.9
2024년	321.6	42.9	52.9	77.1	114.3	136.9
증감액	15.5	3.0	3.7	$\Delta 2.2$	$\Delta 8.3$	$\Delta 8.9$

주1) 2023년은 실적치

주2) 월별 수입액의 사사오입에 따라 전년도와의 증감액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기획재정부. '24년 1~5월 국세수입 현황 재구성

□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2.9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

- <표 5> 참조. 2024년 5월 내국세 수입을 전년도 5월 진도율을 기준으로 감소액을 추정하면 약 153.4조 원이 징수되어야 했으나 136.9조 원에 그쳐 16.5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진도율 기준 감소액 16.5조 원에서 정률 교부세(보통교부세+특별교부세)의 비율인 19.24%를 반영하면 3.08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 가운데 97%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감소액은 2.99조 원으로 추정

〈표 4〉 2024년 5월 국세 수입 누적액 기준 보통교부세(액) 추정치

(단위: 조 원)

5월 기준 내국세 수입 (A)	전년도 진도율 기준 내국세 추정치 (B)	진도율 기준 내국세 감소액 (C=A-B)	전년도 진도율 기준 교부세 결손 추정액 ¹⁾ (D=C*19.24%)	보통교부세 결손 추정액 (D*0.97)
136.9	153.4	△16.5	△3.08	△2.99

주 1) 개별소비세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출되는 담배개별소비세(45%) 0.5조 원(6개월분) 제외.

주 2) 본 추정액은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

자료: 행정안전부 교부세 산정내역, 기획재정부 5월 수입현황

□ 세수재추계 결과 반드시 공개해야

- 기획재정부는 국세 징수 현황을 발표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재추계를 한다고 밝혔다. 세수재추계는 내부 규정에 따라 국세수입과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±5%P를 넘으면 조기경보에 따라 세수 추계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음.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임.

3. 나라살림연구소 의견

- 세수재추계 결과를 공개해 국세 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해지게 해야 함.
 - 세수재추계 결과의 공개가 의무는 아니라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정부 재정·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으로 공개를 기본으로 재추계 작업에 들어가야 함.
 - 세수재추계 결과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내국세와 연동된 정률 교부세(금)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결과 산출 시 즉각 공개해야 함.
-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총수입과 총지출의 조정을 통해 재정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
 -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국세 수입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결산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했음.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불용(지방교부세(금))을 반영한 '사실상 불용'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재정통계에 혼란이 발생했음.
-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
 - 2024년 국세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